

#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Baby boomers' resource transfer of their adult children and level of later-life preparation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학과  
석사 고은비\*\*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계선자\*\*\*

Dept. of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  
Master Ko, Eun-Bee

Dept. of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Kye, Sun-Ja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resource transfer for baby boomers' adult children and related factors pertaining to baby boomers' later-life prepa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2016 using written questionnaires completed by 405 baby boomers residing in Seoul and metropolitan cities in South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3.0 and the following statistical methods: frequency, percentile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 t-test, one-way

ANOVA, Cronbach's alpha, and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aby boomers' average level of later-life preparation was found to be 3.45/5, a relatively rational score. Baby boomers tended to transfer more resource from their adult children when they had many adult children,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romantic relationship. Baby boomers' level of later-life preparation was higher when there was lesser resource transfer of their adult children. The greatest influential variables pertaining to the respondents' later-life preparation were their family's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고은비(keb6371@naver.com)

\*\*\* 교신저자: 계선자(kyesj@sm.ac.kr)

income, children's marital status, satisfaction with their romantic relationship, and level of transfer from their adult children. It was concluded that baby boomers have insufficient later-life preparation in terms of finances due to their need to support their adult children; thus, nation-wide practical programs are needed to prepare baby boomers for a happy life.

**Key Words**: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 노후준비(later-life preparation), 가족관계 만족도(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자녀결혼(children's marital status)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총 인구의 13.8%가 고령자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이상)의 단계에 있으며, 2018년에는 고령자가 14%를 넘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7).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년기를 보다 행복하게 보내기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부터 정년퇴직 연령인 55세에 진입하여 대규모 은퇴를 시작하여 2020년이 되면 전부 65세 이상이 되어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하며, 전체인구의 14.5%(약 695만 명)를 차지한다(통계청, 2017). 과거에 주로 상실과 빈곤, 소외 등 부정적인 관점에서 인식되었던 이전의 노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는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주역 세대이면서 이전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높아 보다 노년기를 새로운 도전과 자기실현의 기회로 여기는 보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정경희, 2012).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으로부터의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정경희, 2010).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서양과는 달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 이고 대학생 성인 자녀의 용

돈, 결혼비용, 집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이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노부모 부양과 함께 손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 최근 황혼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아정책연구소가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맞벌이 가정의 90.2%(415명)가 자녀 양육에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주기 상으로 조부모일 확률이 크며 노후의 여유 있는 삶을 포기한 채 손자녀 양육에 나서 자녀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세대의 조부모들이 다시 한 번 희생을 강요당하며 손자녀를 도맡아 키우게 되는 상황이다(뉴시스, 2017).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는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어 노후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미비한 노후준비는 자녀세대의 경제상황 및 만혼화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우리사회의 만혼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주희, 2016).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들은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노년기 이전부터 자신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단순히 경제적인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여가활동 노후준비 등 다차원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비하여 지난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노후준비의 실태(이승신, 2013; 이용재, 201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손기복, 2014; 정순돌·김성원 2013), 가족 특성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박주희, 2016)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성인자녀와의 관계 특성을 가진 세대로서, 그들이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감을 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요소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볼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감으로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를 미흡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 가정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과 더불어 자녀 양육의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두어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베이비붐 세대의 가치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 부양책임에 관련하여 정경희 외(2010)의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족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51.7%)이 가장 많아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유교가치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의 노후의 바람직한 생활비 마련 방법에 관한 태도는 본인(49.1%)이 가장 많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경희 외, 2010). 둘째, 김혜경·마경희(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 자녀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하였

다. 이용재(2013)의 연구인 베이비붐 세대 총 생활비 중 대학생 자녀교육 비용에 많은 지출 하였으며, 성인기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부양책임에 대해 자기의 부양의무라고 생각한다(한정애, 2014)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통적 가족중심제도와 부양체계에서 성장하면서 노부모 부양과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해 강한 의무감을 보였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스스로의 힘과 경제력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신의수, 2006).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성장의 중심에 있었지만, 노부모 부양과 더불어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세대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준비에는 스스로 부양하려고 하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세대와는 다양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전세대에 비해 이들은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생활 수준이 급격히 높아졌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산업화의 주역이 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매스컴과 기술발달, 세계여행, 개방화의 영향으로 세계화의 중심세대이며, 기존기성세대에 비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사고방식과 생활의식을 보유한 세대이나 정작 자신의 노후생활준비에는 미흡한 것이 특징이다(박주희, 2016).

### 2.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은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기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원으로써 경제적 자원(생활비, 용돈 등), 가사 등 집안일,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보기, 병간호 등), 문제 상담, 말벗 상대가 있으며, 50대 연령이 성인자녀에게 주고 있는 도움으로 경제적 자원은 31.5%, 가사 등 집안일은 30.8%, 가족원 돌봄은 13%, 개인/집안일에 대한 문제 상담은 50.7%, 말 벗 이야기 상대는 56.5%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가족부, 2010). 또한, 최여진·이재림(2014)의 선행연구에서도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자녀에게 주고 있는 경제적 자원은 남성 22%, 여성 25%, 집안 일 등의 자원 제공은 남성 23%, 여성 30%, 손자녀 돌봄 같은 가족원 돌봄은 남성 14%, 여성 16%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조사에 따르면 미혼성인자녀의 문제들에 대한 견해로 학비문제에 대해 50.6%, 취업과 진로문제에 대해 70%가 걱정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울대 베이비붐패널 연구팀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베이비붐 세대의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자녀결혼 자금 29.2%, 자녀교육자금이 26.9%를 차지하였다(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2010). 최여진·이재림(2014) 연구에서도 성인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윤석(2011)의 연구에서도 성인기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교육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은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률이 어머니는 68.8%, 아버지는 71.7%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정경희(2012)가 조사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에 대한 투자를 보면 성인기 자녀가 취업을 미루고 더 공부하겠다고 해도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으며, 송경미(2016)의 선행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생각하는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시기에 대해 졸업할 때까지가 46.0%, 결혼할 때까지가 28.0%, 취업할 때까지가 19.7%,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3.0%, 결혼 후에도 필요하다면 책임져야 한다가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성인인 된 후에도 자녀에 대한 책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자녀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자원 제공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은 더 절실해지고 있다(Buchmann & M.C. · Kriesi, I., 2011). 또한 성인기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구주인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 성인기 자녀가 2000년 약 25만 명에 비해, 2003년 34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최연실, 2014). OECD가 2008년에 발표한 15-29세의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한 후 1년, 3년, 5년 경과한 시점의 'NEET'비율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은 1년경과 시점이 36.8%, 3년 경과시점이 28.5%, 5년 경과 시점이 36.8%로 1년경과 시점은 13개국 중 5위로 나타났으며, 5년경과 시점은 1위로 1년경과 시점부터 5년경과 시점까지 비율이 유지되는 것은 한국만이 보여주는 특징으로, 대부분 부모가 물리적 및 경제적 자원 제공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Kobayashi, 2013).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의 결혼 비용은 물론이고 미취업 성인 자녀의 용돈과 대학원 교육비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비도 부모인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자녀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인 지원은 우리 사회의 만혼화 현상과 깊은 연관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박주희(2016)는 강조하고 있다.

### 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소득, 직업, 주관적 생활수준, 동거가족수로 나타났다(박다정, 2015).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성별은 남성일 때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나는 연구(이용재, 2013)와 여성일 때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이미선, 2012)가 있어 성별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변인은 노후준비도에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박다정, 2015; 이미선, 2012).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잔·후기 베이비붐 집단

모두 경제적 수준과 월평균 가계소득임을 확인숙·홍성희(2013)는 보고하고 있다. 즉 경제적 수준과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순미·고선강(2012)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계자산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생활 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베이비붐 세대인 중년층의 경우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경우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박다정, 2015). 또한, 자녀수와, 자녀의 결혼여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박주희(2016)는 보고하고 있다.

중년기 부부관계와 노후준비도의 관계를 보면 부부간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나의 저축이나 재산으로 살아가겠다.' 61.8%, '연금으로 살아가겠다.' 20%, '자식과 함께 살아가겠다.' 10.9% 순으로 자립적 노후준비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기철, 2000). 또한, 중·장년층의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난 연구(이준희, 2017)도 있었으며, 유효순(2016)의 연구에서도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높을 때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그리고 전체 노후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만족도는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박주희(2016)의 연구에서도 가족 특성 중 배우자 관계만족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관계 특성과 더불어 연구한 자녀관계 만족도는 심리적인 안정감,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가족관계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임다영(2017)은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가족생활주기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진입해 갈 때, 자녀관계 만족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정헌·성혜영, 2009). 즉 자녀관계 만족도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경제자원 이전은 베이비붐 세대인 중년층의 노후생활비 준비에 대한 충분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고선강(2014)은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나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한 경우 베이비붐세대인 중년층은 제공하지 않은 중년층에 비교하여 자신의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확인숙(2011)의 연구에서도 상호교환형 노인과 자녀 지원 교환유형은 풍요로운 노후생활에 영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노인과 자녀의 정서적 관계 및 상호지원이 많을수록 노인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즉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중년기 가정의 경우, 부모,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이 전은 자신의 노후생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김순미·고선강(2012)은 보고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중년기의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노후생활준비도 일정수준이상으로 평가하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 수준을 가늠하는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자녀들은 경제 불황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30대들이므로 이미 성장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만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세대가 중년기였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자녀부양의 책임에

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자신의 노후 생활을 준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년기에 속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이나 취업 등으로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중년기 부모의 역할 수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 할 때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박주희, 2016; 곽인숙·홍성희, 2014). 이로 인해 자신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점을 감안 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족 관계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는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며 성인기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베이비붐 세대 6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8월 14일부터 10월 12일 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5명의 응답결과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 1) 베이비붐 세대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6·25)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1955년)에서 출생한 세대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1963년)까지 9년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의미하되(방하남 외, 2010),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를 의미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과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 이미선(2012), 박다정(2015)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력, 자녀수, 자녀와 동거여부, 자녀결혼 여부를 선정하였다.

### 2) 가족관계 만족도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의미한다(정순돌·김예술, 2014). 또한 가족생활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한주리·허경호, 2005)으로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로 구성되어있다. 단일문항인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

본 연구에서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은 성인기 자녀 즉, 어른이 되는 나이 만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생활비, 용돈 등), 가사 등 집안일,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보기 등), 문제 상담, 말벗 상대 제공을 의미한다.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에 대한 측정도구는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10)에서 성인기 자녀에게 주는 도움 5문을 바탕으로 실제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 여부를 묻는 5문항으로 제공을 하면 1점, 제공을 하지 않으면 0점으로 코딩 한 후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실제 제공하는 자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4) 노후준비도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도는 실제로 본인이 노후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준비의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이미선(2012), 송경미(2016)의 노후준비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 경제적 노후준비도, 신체적 노후준비도, 여가생활 노후준비도로 총 4개의 하위요인, 21문항을 선정하여 보완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합한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정된 문항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값을 사용 하였다.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 )는 전체 노후준비도는 .70, 여가활동 노후준비도 .90, 경제적 노후준비도 .88,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가 .80, 신체적 노후준비도가 .74 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계수(Cronbach’s  $\alpha$ ),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405)

변인		M(SD)	
연령		57.03(4.370)	
변인	구분	빈도수(n)	구성 비율(%)
성별	여성	264	65.19
	남성	141	34.81
직업	경영·관리·사무직	52	12.59
	자영·자유직	88	21.73
	판매·영업직	37	9.14
	단순노무직	38	9.38
	전문직	42	10.37
	전업주부·무직	149	36.80
수입	200만원 미만	66	16.30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6	28.6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25	30.86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5	11.11
	800만원 이상	53	13.0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0	56.79
	대학교 졸업 이하(전문대 포함)	156	38.52
	대학원 이상	19	4.69
성인 자녀수	1명	105	25.93
	2명	258	63.70
	3명 이상	42	10.34
자녀 동거	동거	265	65.43
	비동거	140	34.57
자녀 결혼	기혼	145	35.89
	미혼	259	64.11

변인들의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a: 무응답 데이터는 제외됨.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와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7.03세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 남성이 141명(34.81%), 여성이 264명(65.19%)으로 여성이 더 많이 표집되었다.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무직 149명(36.80%)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자영·자유직 88명(21.73%), 경영·관리·사무직 52명(12.59%), 전문직 42명(10.37%), 단순노무직 38명(9.38%), 판매·영업직 37명(9.14%)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25명(30.86%)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6명(28.64%), ‘200만원

미만' 66명(16.30%), '800만원 이상' 53명(13.09%),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5명(11.1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0명(56.79%)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대학교 졸업 이하(전문대 포함)' 156명(38.52%), '대학원 이상' 19명(4.69%)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자녀수의 경우 자기기입식 주관적 질문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답은 최소 성인기 자녀 1명에서 최대 4명으로, 성인기 자녀 2명을 가진 비율이 258명(63.70%)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 성인기 자녀 1명을 가진 105명(25.93%), 성인기 자녀 3명이상을 가진 42명(10.34%)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자녀와 동거 여부의 경우 '동거함'이 265명(65.43%)으로 비율이 절반을 넘었으며, '동거 안함'이 140명(34.57%)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자녀의 결혼 여부의 경우 '미혼'이 259명(64.11%)으로 비율이 절반을 넘었으며, '기혼'이 145명(35.89%)으로 나타났다.

## 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노후준비도는 4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뉘는데,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는 3.56점, 여가활동 노후준비도는 3.55점, 신체적 노후준비도는 3.45점, 경제적 노후준비도는 3.24점 순으로 노후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후준비도는 3.45점으로 전체적으로 노후준비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다정(2015)의 노후준비도는 정서적 노후준비도, 신체적 노후준비도, 경제적 노후준비도 순으로 나타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는 높은 반면, 경제적 노후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부모 부양과 더불어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에 치여 살아 가는 샌드위치 세대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수 없

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정순돌·김성원, 2013).

<표 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

(N = 405)

변인	M	SD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	3.56	.71
경제적 노후준비도	3.24	.90
신체적 노후준비도	3.45	.69
여가활동 노후준비도	3.55	.96
전체 노후준비도	3.45	.65

## 3.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은 <표 3>과 같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성인 자녀수에 따른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성별, 직업, 수입, 학력, 자녀수, 자녀동거, 자녀결혼에 따른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자녀의 수가 3명 이상 일 때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많았다 ( $F=2.19, p<.05$ ).

<표 3>에서, 가족관계 만족도 중 부부관계 만족도에 따른 성인기 자녀 자원 제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95, p<.05$ ). 나머지 자녀관계 만족도에 따른 성인기 자녀 자원 제공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을 때 성인기 자녀 자원 제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여진·이재림(2014)의 연구 어머니의 경우 부부관계에 덜 만족 할수록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자원 제공을 더 제공하는 것과 일치하며,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성인기 자녀 자원 제공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

변인	구분	M	SD	D
성별	여성	1.24	1.29	
	남성	1.17	1.22	
t		.500		
직업	경영·관리·사무직	1.27	1.14	
	자영·자유직	1.38	1.29	
	판매·영업직	1.21	1.25	
	단순노무직	1.23	1.17	
	전문직	.71	.89	
	전업주부·무직	1.27	1.44	
F		1.236		
수입	200만원 미만	1.07	1.30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0	1.4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14	1.22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26	1.19	
	800만원 이상	1.35	1.03	
F		.62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6	1.33	
	대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포함)	1.17	1.18	
	대학원 이상	1.00	.94	
F		.571		
자녀수	1명	1.00	1.28	a
	2명	1.24	1.22	b
	3명 이상	1.47	1.30	b
F		<b>2.197*</b>		
자녀동거	동거	1.23	1.27	
	비동거	1.19	1.25	
t		.311		
자녀결혼	기혼	1.22	1.24	
	미혼	1.22	1.27	
t		.005		
부부관계 만족도	높음	1.02	1.37	a
	보통	1.15	1.17	b
	낮음	1.47	1.26	b
F		<b>3.954*</b>		
자녀관계 만족도	높음	1.17	1.35	
	보통	1.15	1.18	
	낮음	1.37	1.27	
F		1.032		

\*p<.05,\*\*p<.01,\*\*\*p<.0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낮음: M-SE/2 미만 | 보통:M-SE/2 ~M+SE/2 | 높음:M+SE/2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함.

#### 4.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

〈표 4〉에서 노후준비도의 4가지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는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F=9.01, p<.001)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볼 때,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많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는 낮았다. 이는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수준이 높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낮다는 유효순(2016)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창회, 모임, 친구 등 사회관계를 포함한 영역으로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시 이들은 사회관계 유지를 소홀히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노후준비도 역시,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F=4.70,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많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노후준비도는 낮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을 때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신승희(2010)의 연구와 일치하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 시 대학교육비, 결혼비용, 손자녀 돌봄과 같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을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신체적 노후준비도와, 여가활동 노후준비도는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에 따라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에 따른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F=5.23,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많을 때,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송경미(2016)의 자녀양육부담이 높을 때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 고선강(2012)의 50-60대 부모들은 결혼한 자녀에게까지 확장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어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에도 등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영역별 노후준비도

변인	구분	사회적관계 노후준비도			경제적 노후준비도			신체적 노후준비도			여가활동 노후준비도			전체 노후준비도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인기 자녀 자원 제공	많음	3.37	.72	a	3.07	.87	a	3.38	.74		3.44	1.06		3.32	.70	a
	보통	3.62	.63	b	3.28	.86	ab	3.44	.61		3.64	.88		3.49	.56	b
	적음	3.70	.72	b	3.38	.93	b	3.52	.68		3.60	.90		3.55	.65	b
F		9.011***			4.709*			1.614			1.548			5.230**		

\*p<.05,\*\*p<.01,\*\*\*p<.0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낮음:M-SE/2 미만 | 보통:M-SE/2 -M+SE/2 | 높음:M+SE/2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함.

### 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표 5〉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전체 노후준비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각 단계별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1단계 모형은 VIF는 1.04-1.70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은 VIF는 1.05-1.89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은 VIF는 1.07-3.89로 나타났다. 분산 확대지수(VIF)가 10이하이고,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이 1.935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차 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수입, 자녀결혼 여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전체 노후준비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이 높고, 자녀가 결혼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15%이다. 다음 2단계 가족관계 만족도 변인을 추가한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 중 부부관계 만족도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 때 노후준비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26%이다. 다음 3단

〈표 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대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Tolerance
		SE	$\beta$	SE	$\beta$	SE	$\beta$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101	-.073	-.023	-.017	-.030	-.022	.875
	직업	.159	.074	.110	.051	.061	.028	.901
	수입	.182	<b>.339***</b>	.176	<b>.329***</b>	.184	<b>.345***</b>	<b>.899</b>
	학력	.086	.077	.022	.020	.018	.016	.723
	자녀수	-.026	-.025	-.056	-.053	-.034	-.032	.695
	자녀동거	.054	.039	-.009	-.007	-.008	-.006	.578
	자녀결혼	.157	<b>.114*</b>	.159	<b>.116*</b>	.140	.102	.504
가족관계 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213	<b>.279***</b>	.186	<b>.243***</b>	<b>.683</b>
	자녀관계만족도			.070	.095	.077	.104	.507
성인자녀 자원제공						.098	<b>-.189***</b>	<b>.835</b>
Constant		2,654		1,674		1,791		
F-value		8.842		14.071		15.032		
R <sup>2</sup>		.152		.264		.297		
R <sup>2</sup> -Change				.112		.033		
Durbin-Watson						1.935		

\*p<.05,\*\*p<.01,\*\*\*p<.001

a. 성별: 1=여성, 0=남성

b. 직업: 1=전문직, 0=기타

c. 학력: 1=대졸이상, 0=기타

d. 자녀 동거: 1=동거, 0=비동거

e. 자녀결혼: 1=기혼, 0=미혼

계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 변인을 추가한 결과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은 베이비붐 세대의 전체 노후준비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29.7%이었다. 즉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을 적게 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사회 인구학적 변인인 수입, 자녀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만족도,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력이 큰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노후준비도는 3.45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노후준비도는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 여가활동 노후준비도, 신체적 노후준비도, 경제적 노후준비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가 가장 활발하며,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을 살펴보면, 자녀 수가 많을 때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따른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을 때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에 따른 노후준비도를 살펴보면,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적을 때 전체 노후준비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 경제적 노후준비도 영역에서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을 적게 제공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의 전체 노후준비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1단계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수입과 자녀결혼이 전체 노후준비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이 높고, 자녀가 결혼했을 경우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변인의 설명력은 15.2%로 나타났다. 2단계 가족관계 만족도를 추가한 결과 부부관계 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26.4%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전체 노후준비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을 적게 할 때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의 설명력은 29.7%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를 사회적 관계, 경제적, 신체적, 여가활동 4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경제적 영역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미·엄기욱(2014) 연구의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조사와 같은 맥락으로 사적 연금이 공적연금에 비해 상당히 낮아 경제적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공적연금과 더불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인적 추가연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노후준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취업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노후준비의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 자신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설계할 수 있는 노후생활 설계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지역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성인기 자녀의 수가 많을 때 성인기 자녀 자원 제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의 증가로 가사 등 집안일, 개인/집안 문제 상담, 말 벗, 이야기 상대 등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에 따른 노후준비도를 분석한 결과,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은 사회적 관계, 경제적 노후준비도 2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성인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생활비, 용돈 등), 가사 등 집안일,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보기 등), 개인/집안 문제 상담, 말 벗, 이야기 상대 등을 적게 제공할 때, 자신의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와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기 자녀에게 있어서 가사 등 집안일,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보기 등), 개인/집안 문제 상담, 말 벗, 이야기 상대 같은 자원 제공을 제공하면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에 있어서 동창회, 친목회 등 유대관계나 친구모임 같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 소홀하고,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자신의 노후준비보다는 성인기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 결혼비용 같은 경제적으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작 자신의 노후는 미흡한 것으로 해석되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되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1단계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다음으로 자녀결혼 여부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를 추가한 2단계에서는 부부관계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을 추가한 3단계에서도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중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예측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성인기 자녀들을 위해 가사 등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에 소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자신의 노후준비보다는 성인기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 결혼비용 같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작 자신의 노후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신승희(2010)의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을 때 노후준비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고선강(2014)의 50-60대 부모들은 결혼한 자녀에게까지 확장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어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인 청년취업을 위한 경제 정책, 결혼 비용축소를 위한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식 전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공급, 일·가정 양립 가능한 육아정책 확대 등 성인기 자녀의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 스스로 성공적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에서 실질적 교육지원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해 지역 차원의 부모 자녀 간 상호자원 교류, 부모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적 비교를 실시하여 산업화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성인기 자녀의 만혼화 되는 현상을 축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와 자녀의 자원이전에 대한 교류, 경제적 영역에서의 노후준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변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고선강(201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03-121.
- 2) 고선강(2014). 중년층의 소득계층별 세대간 경제자원 이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79-101.
- 3) 곽인숙(2011). 노인의 자녀와의 상호간 지원 교환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07-127.
- 4) 곽인숙·홍성희(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 인식과 준비도: 전·후기집단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47-172.
- 5)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6) 김정미·엄기욱(2014).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197-221.
- 7) 김혜경·마경희(2015).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주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전기 베이비부머 여성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9(2), 37-70.
- 8) 뉴시스(2017.2.26). '미운 우리 새끼' 황혼육아에 노부모들 '번아웃 증후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1\\_001471846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1_0014718460).
- 9) 박다정(201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박주희(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 특성이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1-17.
- 11)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12)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2010). 베이비부머 연구 특집. <https://ica.snu.ac.kr>
- 13) 손기복(2014). 베이비부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건강상태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송경미(2016).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신승희(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신의수(2006). 베이비붐 세대의 실버타운 입지 및 주거유형 선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여성가족부(2010).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18) 유정현·성혜영(2009). 노년기 우울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9(2), 717-728.
- 19) 유효순(2016). 중장년층의 가족관계 특성, 자기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 이미선(2012). 베이비붐 세대의 노부모 부양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이승신(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4(2), 73-95.
- 22) 이용재(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3(5), 253-261.

- 23) 이윤석(2011).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3), 1-30.
- 24) 이준희(2017). 중·장년층의 가족특성, 노후인식 및 사회적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5) 임다영(2017).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정경희(2010).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 학술대회 자료집, 1-21.
- 27) 정경희(2012). 베이비 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 생활 전망. 보건복지포럼, 192, 40-49.
- 28) 정경희 · 이소정 · 이윤경 · 김수봉 · 선우덕 · 오영희 · 김경래 · 박보미 · 유혜영 · 이은진(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9) 정순돌 · 김성원(2013).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 영향요인: Andersen과 Newman 모델의 적용. 한국노인복지학회지, 59, 237-256.
- 30) 정순돌 · 김예슬(2014).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영향요인: 성역할인식과 부양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족관계학회지, 18(4), 181-197.
- 31) 최여진 · 이재림(2014). 성인자녀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도구적 지원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32(5), 87-105.
- 32) 최연실(201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들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75-89.
- 33) 추기철(2000). 한국 중년층의 노후 대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통계청(2017). 고령자통계. 통계청.
- 35)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6) 한정애(2014). 베이비부머세대 부모와 에코부모세대 자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비교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한주리 · 허경호(2005).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자녀의 성격 및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봄학술대회, 29-31.
- 38) Buchmann, M.C., & Kriesi, I.(2011).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81-503.
- 39) Kobayashi, M.(2013). 한국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 투 고 일 : 2017년 11월 23일
- 심 사 일 : 2017년 12월 31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2일